가정내 어린이 중독 사고 예방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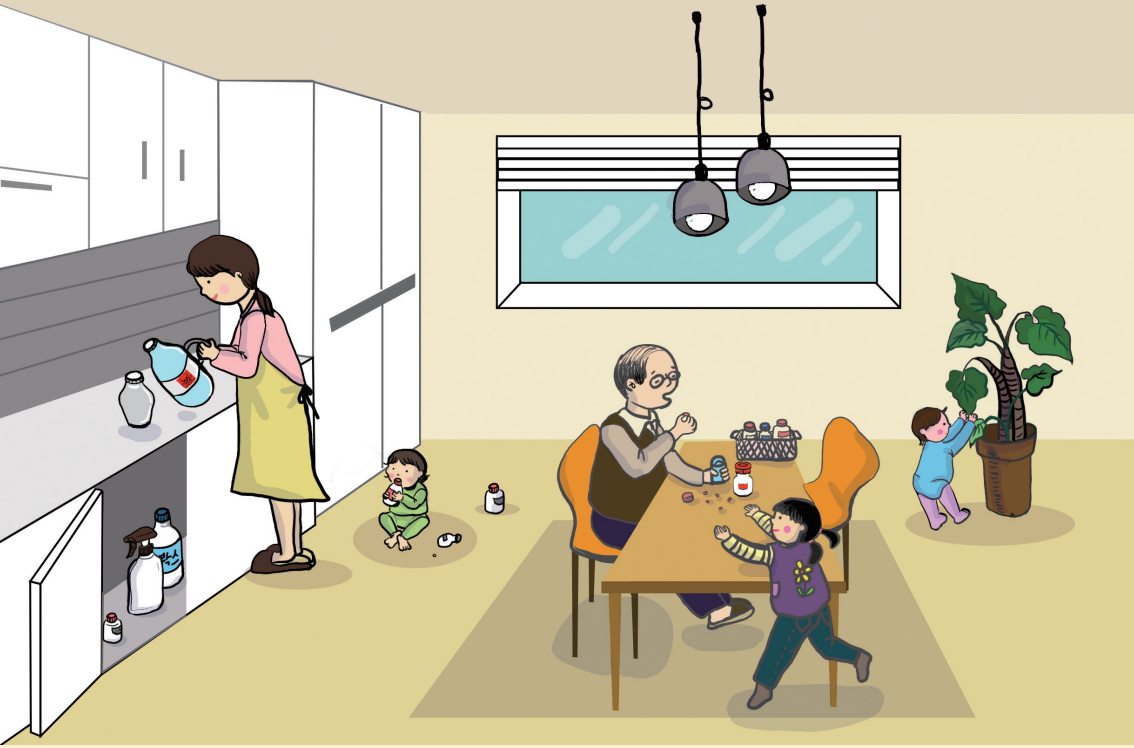
어린이가 안전한 우리 집



중앙응급의료센터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대한임상독성학회
ksclintox.jams.or.kr

무엇을 조심해야할까요?
아이와 함께 찾아보세요.



어린이 중독의 특징



사물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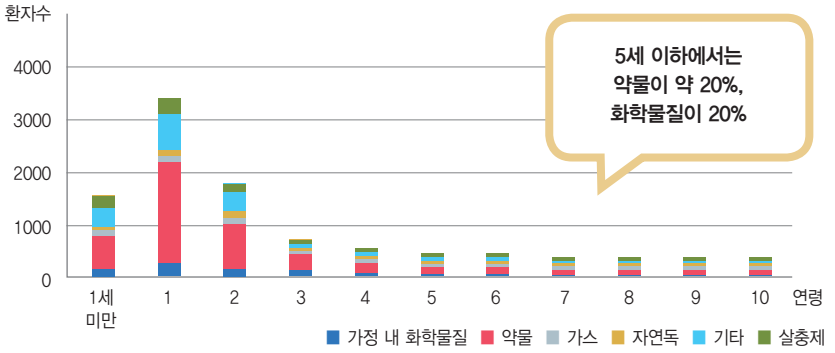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해요.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비의도적인 경우가 많고
무증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검사, 처치 없이
귀가해요.

체중이 작아
소량이거나
성인약 한 알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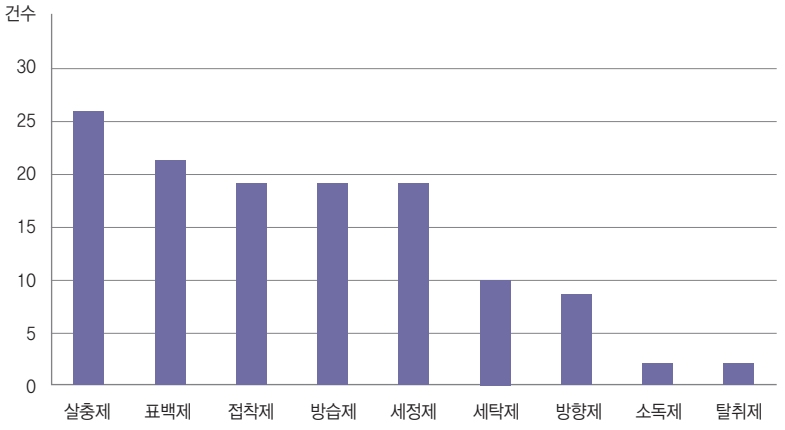
중독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환자들의 중독 원인물질



출처: 2017-18 응급실기반 손상자료

응급실에 중독 사고로 내원하는 10세 이하의 소아는 1-3세가 가장 많습니다.
연령에 따라 원인물질이 다양하지만 어릴 수록 가정 내 비치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중요합니다.

품목별 만 14세 이하 가정내 위해사고 발생건수



출처: 2017-8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

이럴 땐 중독사고를 의심해봐요.

이런 상황이 확인되나요?

아이의 **입 주위**에
아이의 **손**에
아이의 **옷**에
아이의 **주변**에

수상한 **착색**
이상한 **냄새**
내용물이 **비워진** 용기



아이가 외상이나 감염 없이 이런 증상이 있나요?

이유 없는 보챔 /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
침 흘리며 삼키지 못함 / 호흡이상, 청색증
경련, 창백함, 식은땀 / 오심, 복통, 구토, 설사



우리 일상 생활 속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미영씨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다가 27개월 아들이 부엌 서랍 안에 보관해 둔 고체형 식기 세척용 세제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이의 입 주변과 손에 소량 묻어 있으며 입안을 살펴보니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19개월 손자와 함께 사는 67세의 태진씨는 평소 지병으로 매일 아침 4–5개의 알약을 먹는다. 예쁜 손자가 옆에 와서 약 먹는 모습을 지켜볼 때는 걱정 할까봐 “사탕 먹는 거야, 사탕”이라고 말을 걸어주며 먹었다. 어느 날 거실 탁자에 약봉지을 내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아이가 입을 오물거리며 약을 먹고 있었다.

영배씨는 개구쟁이 어린 아들의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위해서 실내에 여러가지 공기 정화 식물을 기르고 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나서 다급하게 뛰어가보니 켁켁 거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서재의 알로카시아 줄기 하나를 먹은 듯 하며 입술이 붓고 목이 막힌 듯 숨을 못 쉬는 듯 하여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다.







야외 가족 나들이를 다녀온 후 영대씨의 딸아이가 눈이 간지럽다며 엉엉 울었다. 비빈 눈이 부어올라 급하게 약 보관함에서 안약을 찾아 투약했는데 아이가 눈이 더 따갑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약 용기를 확인해보니 오랫동안 쓰고 있지 않던 무좀약이었다.

가영씨는 여름을 맞아 친한 이웃에게서 식물 해충 제거액을 작은 빈 음료수 병에 나눠 받아와 서늘한 주방 식탁 위에서 보관해 두었다. 어느날 유치원을 다녀온 딸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하였고 목이 말라 식탁 위의 음료수를 먹다가 맛이 이상해서 조금만 먹었다고 한다.





12개월, 36개월 어린 두 자매를 키우고 있는 진희씨는 아이들의 감기약을 처방 받고 귀가하였다. 몸이 아파 칭얼거리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던 중 두 아이의 약 봉투를 바꾸어 먹인 것을 깨달았다. 아이 둘 모두 구토 없이 잘 자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워서 병원을 가야할지 걱정되었다.

증상에 상관없이 병원에 가야해요.



강산/강염기	빙초산, 락스, 헤어퍼머액/중화제 등
독성 알코올	자동차 워셔액, 유리 세정제, 부동액 등
알코올 함유제	손소독제, 구강 청결제, 화장품, 향수, 고농도 술 등
탄화수소	석유 제품, 가구 광택제, 자동차 탈지제, 휘발유, 페인트 시너, 접착제(본드) 등
관상식물	알로카시아, 잉글리쉬 아이비, 디펜바키아, 칼라디움, 필로덴드론
기타	캡슐형 세제, 네일 리무버, 염색약, 담배, 쥐약 등
한 알로도 치명적인 약물	항부정맥제, 칼슘통로차단제, 당뇨병약, 항경련제, 삼환계항우울제, 항정신병제, 말라리아약, 아편유사진통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화장품	유아 비누, 유아 세정제, 유아 샴푸, 유아 로션, 기저귀 발진크림, 립스틱, 립밤
미술 재료	연필심, 점토, 진흙, 지우개, 풀, 스티로폼, 수성물감, 소량의 크레용
기타 생활용품	양초, 제습제(실리카겔), 알루미늄 호일, 녹, 신문, 플라스틱, 씹는 껌
약물	경구 피임약, 항생제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

100%로 무해한 물질은 없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중독사고 의심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요.

STEP 1.
아이를 먼저 살펴요.

-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아이가 축 늘어지거나 창백하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물이나 우유를 먹여 희석하려 마세요.

STEP 2.
노출 물질을 제거해요.

- 입으로 삼켰다면 입안과 입 주변의 남은 물질을 제거해요.
- 눈이나 피부에 닿았다면 수돗물로 15분 이상 깨끗이 씻어내요.
- 흡입을 했다면 환기가 원만한 곳으로 아이를 옮겨요.



억지로 구토하면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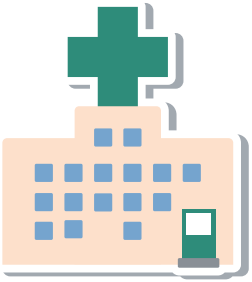
STEP 3.
노출 물질의 정보를 모아요.

- 물질을 담고 있던 통, 병 등의 실물을 병원으로 가져가세요.
- 실물을 가져가지 못 할 경우는 용기 혹은 설명 라벨의 설명문의 사진을 가져가세요.
- 대략적인 노출된 시간과 용량을 추정하여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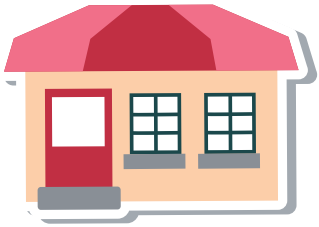
소량으로도 위험하다고 알려진 물질은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병원에서는 어떤 처치를 받게 되나요?





안전한 우리 집,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1) 언제든 중독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요.

2) 우리 가정은 안전할 거란 편견을 버려요.

3) 어린이 보호 포장 용기의 제품을 선택해요.

4) 제품 용기의 뚜껑은 꼭 잠궈 둬요.

5) 주의사항 라벨을 꼭 읽고 제거하지 않아요.

6) 제품들의 원래 용기에 보관해요.

7) 싱크대 밑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보관하지 않아요.

8) 약물과 화학물질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요.

9)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약을 먹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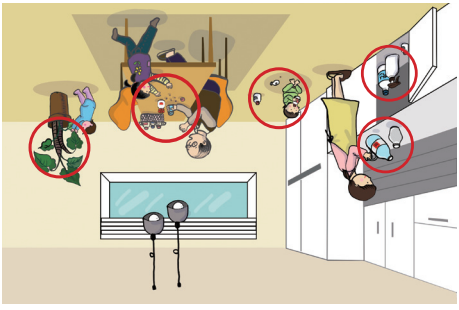
10) 아이들에게 약을 사탕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독 사고 발생시 참고처

1. 응급의료 포털
   https://www.e-gen.or.kr/egen/main.do
2.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 시스템
   https://www.nifds.go.kr/toxinfo/
3. 드러그인포 의약품 정보제공
   https://www.druginfo.co.kr/
4.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제공
   https://msds.kosha.or.kr/kcic/msdssearchMsds.do

2페이지 위험요인들. 모두 다 찾으셨나요?



제작 및 감수_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진
일러스트레이터_한진희
발행일_2020년 12월